

트위터와 뉴스기사 분석을 통해 본 계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

Stepmother Images through Analyses of Twitter and News Articles

정수정*, 김소은**, 정익중**
동명대학교 산학협력단*,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Su Jeong Jeong(jsjs@tu.ac.kr)*, So Eun Kim(cosmosmuri@hanmail.net)**,
Ick Joong Chung(ichung@ewha.ac.kr)**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소셜미디어와 언론매체에서 나타나고 있는 계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트위터와 뉴스기사에 나타난 내용을 분석해보았다. 이를 위해 트위터와 뉴스기사에서 ‘계모’로 검색된 텍스트를 분석하였고, 주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R’을 이용한 분석 결과 계모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어린 시절 접하게 되는 동화의 키워드와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트위터와 뉴스 기사를 분석한 결과 대중의 인식은 ‘계모’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적 이미지 강화, 대안적 메시지 제공의 두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부정적 이미지는 동화처럼 계자녀를 구박하는 부정적 계모의 이미지와 함께 재혼가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고정관념으로 강조되어 드러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긍정적인 대안적 메시지는 재결합 가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생겨나는 것에 대해 우리가 형성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계모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안 등을 논의하였다.

■ 중심어 : | 계모 | 트위터 | 뉴스기사 분석 | 사회적 인식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ocial perception of stepmother in social media and news. For this purpose, we analyzed the texts that were searched as ‘stepmother’ in Twitter and news articles. The main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The public perception is divided into two types: strengthening the negative image of the stepmother, and providing a positive alternative message to the negative image. Negative images were reported in the media as negative stereotypes about remarried families, as well as images of negative stepmother that afflicts stepchildren like fairy tales. Positive alternative messages were concerned about the negative perception of remarried familie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discussed alternatives to avoid prejudice against stepmother.

■ keyword : | Stepmother | Twitter | News Article Analysis | Image |

I. 문제제기

시대가 변함에 따라 가족 구성도 함께 변화하고 있다. 통계청의 ‘2017년 혼인 이혼 통계’를 기준으로 초혼은 206천건(77.9%), 재혼은 13천건(11.7%)을 차지하였다.

특히 전년대비 초혼과 재혼 모두 감소했으나 초혼에 비해 재혼의 감소비율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혼은 당사자와 가족구성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인생 사건이며, 동시에 여러 가지 생활변화와 적응 및 스트레스를 초래할 수 있다. 재혼은 초혼의

접수일자 : 2018년 06월 20일
수정일자 : 2018년 07월 19일

심사완료일 : 2018년 07월 23일
교신저자 : 정익중, e-mail : ichung@ewha.ac.kr

상처를 극복하고 새롭게 가정을 재구성하려는 노력이지만 재혼에 대한 사회적 시각은 전통적인 편견으로 인한 부정적 측면이 남아있다[1][2]. 재혼의 경우 초혼과는 다르게 자녀문제가 어려움 중에 하나로 작용하는데, 이혼부부 70%가 20대 미만의 청소년 자녀를 두고 있어 재혼을 하는 경우 자녀의 양육과 훈육의 어려움, 부모의 기대 불일치 등으로 많은 갈등이 생기고 있다[3].

재혼가정에 대한 인식과 문제가 투영되어 있는 용어들은 대부분 '계모'와 관련되어 있어 재혼가정의 여성들이 체감하는 역할의 비중은 더욱 막중하고 어렵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반영하고 있다[4]. '계모(繼母)'는 한자에서 보여주듯 철저히 자식의 양육을 염두하고 만들어진 단어[5]로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계모'를 의붓어머니 즉, 아버지가 재혼함으로써 생긴 어머니라고 정의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7)에서도 '재혼을 통하여 맺어진 모(母)'를 계모로 정의하고 있다. 가족적 본질에서 접근해보면, 원래 서로 남남이었던 아동과 성인 여성이 갑작스레 모자관계가 된다는 것은 생각만으로도 어려운 일이기에 계모의 좋지 않은 인상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6]. 그러므로 재혼가정의 새어머니가 되는 '계모'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어떠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계모는 재혼여성으로서 일반적으로 아동의 양육은 물론이고 가사일의 주담당자로 남편에 비해 아내에게 기대되는 역할이 상대적으로 많다[4]. 재혼가족 구성원들은 기존 가족에서 새로운 가족으로의 갑작스런 변화로 여러 가지 적응에 문제를 겪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수준이다. 이혼가정의 자녀는 부모의 이혼과 재혼으로 큰 충격을 받기에 계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왔으나 계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 초점을 맞춘 국내연구는 거의 없으며 일부의[7] 해외연구만 찾아볼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는 여전히 초혼 중심의 정상가족 이데올로기가 지배적이기에 재혼가족은 문제 있는 불완전한 가족으로 여겨져 재혼가족을 문제지향적으로 바라봄에 따라 재혼가족의 적응을 더욱 어렵게 하고, 혈연 중심의 가족중심주의에서 계모와 계자녀의 관계가 안정화되기란 매우 어렵다[4]. 교사를 대상으로 한 재혼가

족 인식 조사에 의하면 계모 가정의 아동을 비교적 부정적으로 인식[8]하고 있었으나 실제로 재혼가정 자녀의 경우 계부 가정보다 계모 가정의 청소년이 더욱 당당하게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9]. 우리에게 '계모'는 계자녀를 구박하는 악랄한 이미지로 좋지 않은 뜻으로 여겨지지만, 이와 반대로 계모는 생물학적 엄마와 달리 계자녀들에게 '진짜 가족이 아니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심지어 '계자녀와 함께 살면서 폭행과 살인의 위험이 더 높았다'라고 보고된 바도 있다[2].

우리가 대중적으로 접하게 되는 신문 및 방송에서 보도되고 있는 아동학대사건들을 살펴보면 계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다. 신문방송 및 인터넷 기사들 중 아동학대 사실을 계모에 초점을 둔 자극적인 기사제목으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고, 계모에게 잔혹한 학대를 받아오던 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들을 우리는 '울산계모'사건, '칠곡계모'사건이란 이름으로 기억한다. 아동학대 관련 뉴스의 담론은 언론매체의 일방적 선택에 의해 보도되어서 수용자는 친부모의 학대, 계모의 학대와 살인, 어린이집 교사의 폭력적 학대 등의 사건을 수동적으로 접하는 과정에서 언론 매체가 그려내는 담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우려가 있다[10].

실제 우리사회에서 계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실제로 가장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지 관련 데이터를 확인하고, 우리의 인식 속 계모는 어떤 모습으로 자리 잡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소셜미디어 및 언론매체 콘텐츠를 통해 계모에 대한 대중의 사회적인 인식이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언론에 의해 보도되는 자극적 사건 중심의 보도 경향으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사건 보다 더욱 선정적 요소들이 있을 수 있고, 언론을 바탕으로 한 여론은 정책 입안자에게 대중의 정서를 전달하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11] 일부사건이 전체사건의 특성을 대변하는 것처럼 인식될 수도 있다. 이에 언론과 소셜미디어가 계모를 어떤 방식으로 인식하고 담론을 형성하는지 살펴봄으로써 우리사회에 재혼가정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고, 나아가 사회적 변화를 선도할 실천적·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고찰

1. 언론매체와 계모

현대사회에서는 특정집단의 대중 이미지 형성은 주로 언론매체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특히 신문기사 및 뉴스 등 주요 언론매체에서 제공되는 정보들로 어떤 사건과 상황을 판단하고 그 사건과 관련된 사람이나 특정 집단에 대한 이미지와 고정관념을 자연스럽게 형성하게 된다[12]. 언론매체 담론 자체가 사회의 특성에 기여하고 우리가 언론매체를 통해 나타나는 언어를 연구함으로써 언어의 표면과 가장 밀접한 이데올로기 및 권력의 문제들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다[10]. 즉, 계모에 대해 대중이 가진 이미지도 언론매체와 밀접하게 관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2014년 언론을 뜨겁게 달군 ‘울산계모사건’, ‘칠곡계모사건’ 등 각종 언론매체의 노출을 통해 계부·계모의 아동학대가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지만 실제로는 친모와 친부에 의한 학대가 훨씬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 실제 2016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13]에 나타난 학대 행위자의 비율은 [표 1]과 같이 아동학대 전체 건수 중 2017년을 기준으로 친부에 의한 학대가 9,475명, 친모에 의한 학대가 6,775명에 이르며, 계부에 의한 학대는 398명, 계모에 의한 학대는 337명에 불과하였다. 오히려 계부모에 의한 학대보다 친부모에 의한 학대가 22배 이상 많이 일어나고 있다. 최근 5년간 피해아동 가족유형을 살펴보면, [표 1]에서처럼 2013년에 2017년까지 친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표 1. 학대행위자(부모)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2013~2017년까지 계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변화는 완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추정해 보았을 때 계부와 계모에 의해 아동학대가 발생할 가능성은 친부모보다 현격히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외연구에서도 아동학대사망(CMFs: Child maltreatment fatalities)은 대부분 부모 혹은 보호자에 의해 자행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14]. 그렇다면 왜 언론 보도는 재혼가정의 아동학대 사건을 보도함에 있어 계모라는 사실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인가?

‘평택 실종아동 계모 학대로 숨져...시신은 야산에 암매장 (2016. 03. 12., 뉴스웨이)

신원영 군 ‘락스학대 찬물 세례’ 받아...계모·친부 잔혹성 속속 드러나(2016. 03. 12., 네이버 뉴스; [15]).

평택 “악마계모” 자백...온몸에 락스 붓고 3개월간 육실생활(2016. 03. 12., 채널A)

신문기사의 제목처럼 대부분의 언론들이 자극적으로 계모사건을 부정적 어조로 보도하고 있다. 그렇다면 아동학대의 79%를 차지하는 친부모에 의한 학대는 왜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는 것인가에 대해 반문하게 된다.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신문기사를 분석한 연구 [16]에서도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가해자는 친부모가 76.6%로 나타났고, 계모나 동거녀, 위탁모에 의한 살해는 9.9%로 보고되고 있다. 이처럼 아동학대는 대부분 친부모에 의해 발생하고 있으며 계모 및 동거녀에 의한 학대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그러나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매스컴에서 다룰 때 현실성 있는 문제 집단에 대한 보도를 하기 보다는 소수 일탈자의 병리적 행동에만 초점을 맞춘 아동학대 영상이 방송에 보도되고 있어, 아동학대의 가해자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친부나 친모에 대한 현실은 간과하고 고전적으로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계모에게 고정관념을 더욱 고착화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1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혼가정의 어머니로서 가족적응 스트레스와 전통적 편견으로 이중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모에 초점을 맞추어 소셜미디어와 언론매체 콘텐츠별로 계모에 대해 갖고 있는 사회적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1. 'R'을 활용하여 확인된 계모에 대한 대중의 일반적인 사회적 인식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트위터와 뉴스 텍스트 분석을 통해 나타난 계모의 이미지는 어떠한가?

III. 분석대상 및 연구방법

계모에 대한 대중의 사회적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소셜미디어와 언론매체에서 제시되는 계모에 대한 이미지와 고정관념 및 편견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새엄마, 새어머니, 양모, 양어머니, 의붓엄마, 의붓어머니' 등과 같은 유사 용어들이 있음에도 '계모'라는 용어를 선택한 이유는 연관어 탐색 수치를 알 수 있는 소셜메트릭스[18]를 이용하여 관련 키워드에 대한 탐색결과 '계모'와 관련된 연관어 탐색건수가 3,992건으로 '새엄마 3,613건' 등 다른 유사용어에 비해 가장 많았기 때문이다.

'계모'에 대한 대중적이며 일반적인 사회적 인식조사를 위해 일차적으로 워드 클라우드 분석을 통해 계모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연관되어 언급되는 단어들을 살펴보았다. 워드클라우드 분석을 위해 2016년 1월을 기점으로 '계모'라는 주요 단어가 출현하여 시각화된 텍스트의 의미 있는 단어가 도출된 시점은 2010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의 기간으로 특정되었다. 텍스트 분석은 '계모'라는 핵심단어의 출현과 함께 양방향의 많은 의견 표현과 단방향의 문장표현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회적 주요 이슈에 대한 트윗량이 가장 많으며 뉴스기사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2015년부터 2016년 3월까지의 3개월간의 시점으로 설정되었다.

기존 연구에서 소셜미디어 및 언론기사에 대한 방법론을 확인할 수 있는데, 우선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신문기사 분석 연구[19]에서 신문기사는 특정 사건에 대한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중요 자료로써 언론으로 보도된 사건의 경향을 파악해 사회적 담론을 확인할 수 있다[19]. 소셜미디어 빅데이터를 통한 시청자 반응과 성공 요인 연구[20]에서는 일반 설문조사보다 소셜미디어의 빅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인

터넷 유저를 대상으로 조회수 및 이슈 키워드 등을 분석해 표본을 높여 연구의 신뢰도를 향상시켰다.

본 연구에서는 소셜미디어의 빅데이터를 통해 대중의 인식, 언론기사를 통한 사회적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이슈키워드인 계모의 워드클라우드 분석과 트위터와 뉴스기사의 텍스트 분석을 실시하였다.

1. R 프로그램을 활용한 트위터의 사회적 인식조사

계모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살펴보고자 소셜메트릭스에서 추출된 핵심 키워드인 '계모'를 바탕으로, 특정 토픽에 대한 사람들의 변화가 빠르게 반영되고 사회적 관심 등의 정보가 풍부히 제공되는 소셜미디어인 'Twitter(트위터)'의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트위터는 사용빈도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비해 낮지만, 텍스트 중심의 소셜미디어이기 때문에 특정 이슈에 대한 의견 탐색 매체로서 여전히 높은 수준의 영향력을 가지며, 타 소셜미디어에 비해 정보를 좀 더 빠르게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21]. 특히, 뉴스와 같은 언론매체가 단방향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반면, 트위터는 양방향 소통 정보를 제공하기에 대중의 사회적 인식 현황을 살펴볼 수 있다. 이를 위해 'R'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였는데, "R"은 통계 소프트웨어 개발 및 통계적 계산과 그래프의 시각화를 위한 프로그래밍 언어이며, 특히 R에서 지원하는 Library 덕분에 트위터와 같은 소셜미디어의 빅데이터 분석 및 데이터 마이닝이 가능하다[22][23].

트위터의 빅데이터에서 '계모'와 관련한 단어를 추출해내고, 빈도수를 분석하여 가시성 있게 제시하는 기법인 Word cloud로 시각화하였다[3][24-27]. '계모'와 관련된 자료수집은 트위터 한국어 홈페이지(<http://www.twitter.com/>)에서 게재된 트윗, 이용자 ID, 트윗이 게재된 날짜 등을 Open Java Library인 Twitter4J의 Twitter Stream API를 통해 이루어졌다. 자료검색은 2017년 12월 이전 기간에 "계모"와 관련된 트윗을 검색하여, 수집되었으며, 이후 텍스트를 필터링하고, 데이터를 검수하는 작업을 반복하였다. 최종적으로 "계모"라는 단어가 분석결과에서 시각화되어 나타난 총 1천만

건에 대한 데이터 검색을 한정해 데이터를 수집한 결과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년간의 데이터에서 의미 있는 분석결과가 도출되었다. 계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살펴보기 위하여 R version 3.2.2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트위터의 데이터를 워드클라우드 분석하여 최종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2. 트위터와 뉴스의 텍스트분석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는 것은 빠르게 변화하는 다양한 기술 분야에서 경쟁력을 가지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28][29]. 이에 워드 클라우드 분석을 활용하여 ‘계모’란 단어의 시각적 출현으로 의미가 있었던 2015년 12월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트위터에서 ‘계모’와 관련하여 가장 활발히 트윗이 이루어지는 시기를 특정하였다. 이는 트위터가 대중의 반응을 살피기 위한 댓글 보기가 제일 활발[21]하기에 대중적인 계모에 대한 인식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네이버 데이터 랩사이트[30]를 활용하여, ‘계모’라는 주제어에 대한 검색 및 클릭이 가장 많았던 기간인 2016년 3월 시점의 트위터와 뉴스기사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2015년 12월부터 2016년 3월까지 3개월간의 기간은 핵심 검색어인 “계모”로 검색했을 때 계모와 관련된 트윗이 가장 많았던 시기이다. 이 기간은 ‘인천 여아 학대사건, 부천 여중생 백골 시신 사건, 경남 고성 초등학교 암매장 살인사건, 평택아동암매장 살인사건(신원영군사건), 청주 아동암매장 살인사건’ 등 총 6건의 아동학대 사건이 집중적으로 보도되며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시기다. 특히 ‘신원영군 계모사건’으로 계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크게 이슈화 되었기에 대중의 양방향, 단방향 매체에서 고정관념 및 편견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많은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2015년 12월부터 2016년 3월까지 ‘계모’와 관련하여 연관 검색된 트윗은 1,467건, 뉴스기사 1,502건 이었으며, 이 중에 중복되거나 주제와 적합하지 않은 것은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트위터 1,099건, 뉴스기사 407건에 대한 텍스트를 추출하여 그 내용을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은 관심현상에 대한 공통적인 주제의 의미를 밝히는데 초점을 두는 ‘Braun and

Clarke(2006)의 주제 분석 6단계’에 따라 반복적 자료읽기와 의미 있는 내용 확인을 위한 능동적 글 읽기 후 ‘계모’관련 표현의 공통된 특성을 강조하여 ‘계모’와 관련된 대중적 이미지를 도출하였다. 이후 도출된 이미지의 전체 자료와 부합여부를 확인함과 동시에 주제 개념화 및 범주화를 통해 주제를 명명하고 내포하는 의미를 요약 기술하였다. 이와 같은 단계의 자료 분석을 통해 뉴스기사와 트위터의 트윗 글에 나타난 하부주제, 그리고 주제 범주화 등을 통해 ‘계모’에 대한 대중적 이미지와 고정관념 및 편견을 도출해 보았다.

IV. 연구결과

1. ‘R’을 활용한 계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조사

“계모”와 연관 검색된 단어를 살펴보면, 20번 이상 언급된 키워드는 ‘계모, 사과, 사람, 사춘기, 엄마’순으로 나타났으며, 15번 이상 언급된 단어는 ‘왕자, 계모, 엄마, 사춘기, 사랑, 사람, 사실, 생각, 언니, 백설공주, 부모님’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종적으로 필터링 된 데이터에서 10번 이상 언급된 단어들로 Word cloud를 분석한 결과 [그림 1]과 같이 연관어가 제시되었다[31][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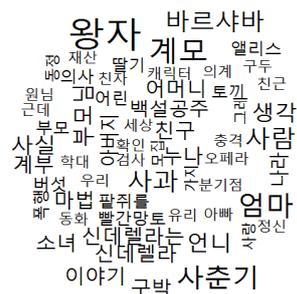


그림 1. “계모”와 관련된 Word cloud 값

[그림 1]의 Word cloud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단어인 ‘왕자’는 신데렐라와 백설공주에서 등장인물로 가장 많이 언급 되었으며 계모와 연관된 단어로는 ‘학대, 폭행, 사춘기, 구박’이 연관된 결과 값으로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사회적 인식조사 결과 대부분은

재혼가족연구의 시각과 연구 성과에 관한 문헌고찰[33] 연구에서처럼, 우리사회에서 계부모와 계자녀 간의 관계가 나타나고 있는 여러 용어와 속담, 전래동화, 신문, 뉴스 등에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분석 결과에서 보여지 듯 우리의 인식 속에 뿌리 깊게 남아있는 계부모와 계자녀의 부정적인 낙인으로 사회에도 그 파생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회적으로 공분을 사는 아동학대사건이다. 신문 방송에서 보도되고 있는 아동학대에 대한 기사를 살펴보면, 계모에게 오랜 기간 학대받아오던 아이들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 사건들을 우리는 ‘울산계모 사건’, ‘칠곡계모사건’ 등으로 기억하고 있다[15]. 이에 계모에 대한 우리의 편협한 편견으로 고착화된 인식이 올바른 정보습득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아동학대 관련 트위터와 뉴스 기사를 텍스트 분석해 보았다.

2. 트위터와 뉴스 텍스트에 나타난 계모의 이미지

트위터와 뉴스를 통해 검색된 텍스트 자료를 바탕으로 트위터에 나타난 계모의 이미지와 뉴스에 나타난 고정관념 및 편견을 분석한 결과 계모에 대한 이미지는 기존에 고착화된 부정적 이미지 강화와 더불어 부정적인 계모 이미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대안적 메시지 제공의 2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졌다. 트위터와 뉴스 각각에서 나타난 계모에 대한 이미지와 대안적 메시지의 유형은 [표 2]와 같이 나타났다.

계모에 대한 고정적인 이미지를 강화하는 인식은 ‘동화처럼 현실세계에서도 계자녀를 학대하는 부정적인 계모 이미지’로 트위터(42.4%)와 뉴스(61.8%) 모두 일방적 인식임을 보여주고 있다. 계모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확장된 ‘재혼가정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트위터(9.2%)에서 나타난 부정적 인식이 뉴스(2.0%)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재혼과 재혼가정에 대한 대중의 부정적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공정성과 중립성을 통해 인식의 왜곡이나 편견을 바로잡아 주어야 할 언론매체가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계모와 관련해서는 대부분 부정적 이미지를 강화하는 형식의 보도를 하고 있다.

표 2. 트위터와 뉴스 텍스트의 계모 이미지

(단위: 빈도 (%))

대분류	담론		트위터	뉴스
	소분류	세부내용		
고정적 이미지 강화	① 현실세계에서도 계자녀를 구박하는 부정적 계모 이미지	나쁜 새엄마, 동화보다 더 잔혹한 현실, 계모는 사악, 현대판 계모사건	466 (42.4%)	251 (61.8%)
	② 재혼가정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	자기 배 아파 낳은 자식이 아니니까, 이혼과 재혼의 부작용, 아이 위해 재혼하면 안된다.	101 (9.2%)	8 (2.0%)
대안적 메시지의	① 편견에서 벗어나 사회구조적 문제 직시	그냥 엄마라고하면 안되나? 재혼가정도 많을텐데, 계모 등 가족결함관계를 특정짓고 편견을 조장할 단어사용은 피했으면.	214 (19.5%)	127 (31.2%)
	② 낳은 정보보다 기른 정의 중요성 강조	걱정은 정말 온 맘으로 정성을 다해 아이를 기르고 있을 계부, 계모들	4 (0.4%)	1 (0.1%)
	③ 계모보다 친부의 방임에 대한 비판적 시각	친부는 적극적인 가해자 입장, 모르쇠 친부	314 (28.5%)	20 (4.9%)
합계			1,099 (100%)	407 (100%)

그럼에도 계모에 대한 기존의 부정적인 인식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대안적 메시지가 있으며 계모에 대한 편견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우선, 대안적 메시지로 계모에 대한 편견에서 벗어나 사회구조적 문제로 직시한다는 뉴스기사가(31.2%)로 트위터(19.5%)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계모에 대한 고정관념이 포함된 언론보도가 여전히 더 많이 있지만, 왜곡된 시각이 아닌 현 문제 사항에 직면하여 그 해법을 찾아가려는 노력을 언론매체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계모의 학대보다 친부인 아버지의 방임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은 트위터(28.5%)가 뉴스(4.9%)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중들의 자발적 목소리로 친부의 방임에 대한 책임을 더욱 강하게 묻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트위터와 뉴스의 분석 내용을 전반적으로 비교해보면 트위터의 경우 고정적 이미지 567건, 51.6%, 대안적 메시지가 537건, 48.4%로 계모라는 용어 대신 엄마라고 부를 것과 아버지의 책임을 강조하는 인식 전환의 의견이 기존의 고정적 이미지에 상응할 정도의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뉴스의 경우에는 고정적 이미지가 259건, 63.6%, 대안적 메시지가 148건, 36.4%로 아직

까지 기존의 계모와 재혼가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트위터와 뉴스에서 나타난 차이를 바탕으로 각각의 유형에 대한 이미지를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2.1 부정적인 고정적 계모 이미지 강화

계모에 대하여 거의 대부분 부정적 이미지로 인식하고 이러한 인식을 고정적으로 강화하는 내용들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어린시절 동화에서 계자녀를 구박하는 부정적 계모의 이미지를 통해 현재의 부정적 통념이 생기게 되어, 재혼가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특히 확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언론매체 등의 보도에서도 계모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내포한 기사를 많이 보도하고 있어 계모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2.1.1 계자녀를 구박하는 부정적 계모 이미지

트위터와 뉴스 모두 어린 시절 접했던 동화책을 통해 계모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화책에서 등장하는 ‘계모’는 ‘나쁜 새엄마’를 지칭하는 말과 동일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동화책에서 계모의 이미지는 사악한 사람이었다. 심지어 ‘계모’가 ‘의붓어머니’와 같은 의미의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계모’란 단어를 더욱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실제로 원영이 사건을 통해 ‘신데렐라’와 같은 계모 동화보다도 참혹한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고 이야기함으로써 계모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과 동화를 연결하고 있는 것을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나는 어릴 때 <계모>는 나쁜 새 엄마를 지칭하는 단어라고 생각했다 콩쥐팥쥐도.. 신데렐라도 괴롭힌다고 적었지만 학대지.. 그런 이미지들이 모여서 계모가 더 악랄한 사람이 되는 것 같다계모니까 그럴만하다는 식”(트위터, 2016-03-12)

“술한 계모 설화와 동화를 읽으며 자랐다. 좋은 계모는 없었다 그들은 방임 유기 폭행 살해를 저질렀다.”(트위터, 2016-03-12)

뉴스 기사에서도 아동학대의 본질적 문제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었다. 왜 늘 계모는 사악하고 친아버지는 방조하는가, 옛이야기 ‘콩쥐팥쥐’와 ‘장화홍련’에 나오는 나쁜 계모를 연상시키는 현대판 계모 사건이었다.”며 계모형 동화라는 허구적 이야기와 현실세계의 아동학대 사건을 연관 지음으로써 ‘계모’의 나쁜 이미지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었다. 왜 늘 계모는 사악하고 친아버지는 방조하는가[34]

“칠곡 계모 사건”으로 세상은 떠들썩했다. ‘콩쥐팥쥐’와 ‘장화홍련’에 나오는 나쁜 계모를 연상시키는 현대판 계모 사건이었다”(네이버 뉴스: [35])

이처럼 자극적인 뉴스기사의 헤드라인과 함께 언론에서 사용하는 두 용어 즉, ‘계모’와 ‘의붓아버지’의 무게감이 다르게 보도되고 있다. 의붓아버지가 아동학대를 저지를 경우 좀 더 부정적 의미가 내포된 ‘계부’라는 표현보다는 부정적 의미가 상대적으로 덜한 ‘의붓아버지’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의붓어머니’에 의한 아동학대의 경우 부정적 의미가 더 많이 내포된 ‘계모’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난 언론에서 아동학대의 가해자를 다룰 때 계모/의붓 아버지 두 단어에서 좀 다른 무게감을 느낀다(트위터, 2016-03-12)

2.1.2 재혼가정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

일반적으로 계모라서 아동을 학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신의 혈육이 아니기에’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기반으로 계모는 친자식이 아닌 동거인 아동에게 학대를 저지를 수 있다는 사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계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뛰어넘어 ‘이혼과 재혼에 따른 부작용은 이제 사회문제로 보아야하기 때문에, 부모들은 아이들을 생각한다면, 재혼해서는 안 된다’라는 편협한 논리로 재혼가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이어지고 있다.

“계모 참 무섭다. 그 마음이. 계속되는 영아 학대보니 이제는 사회현상이다 이혼과 재혼에 따른 부작용.”(트위터, 2016-03-12)

“재혼하면 안 된다 계모들이 아이들 살인 암매장 연속이다.”(트위터, 2016-03-12)

이처럼 계모와 재혼 가정을 바라보는 부정적 인식과 부정적 정서가 더욱 팽배해지고 있음에도 언론매체에서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은 미비한 실정이다. 예컨대 ‘아동학대의 80%는 친부모에 의해 이뤄진다’는 사실을 전달하고, 계모나 계부의 부정적 이미지에 의해 아동학대를 더 많이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편견이라는 점을 꼬집어줄 필요가 있음에도 이러한 노력이 부족한 실정이라는 것에 주목해야한다.

“원영이는 계모의 학대로 사망했지만 아동학대의 80%는 친부모에 의해 이뤄진다.”[37]

2.2 대안적 메시지를 담은 논의

계모’에 대해 대부분이 부정적 이미지를 고착화하고 강화하고 있지만, 계모에 대한 기존의 인식에 비판적이며 대안적 메시지를 담은 논의가 다행스럽게도 조금씩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보인다. ‘계모’라는 단어 대신에 ‘엄마’, ‘부모’와 같은 편견 없는 중립적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계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서 벗어나고, 사회구조적 문제로 직시하고자하는 의지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소수의 의견이지만 자생적인 목소리를 통해 우리사회에서 긍정적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2.2.1 편견에서 벗어나 사회구조적 문제 직시

기존의 전래동화 속에서 부정적인 이미지에 동화된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닫고 벗어나고자 하는 의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아동학대사건이 발생했을 때 ‘계모’라는 용어로 인해 가족결합관계를 특정 짓고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단어사용은 피했으면 하는 의견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재혼가정이 많은 요즘 사람들의 편견을 부추기는 ‘계모’라는 말 대신 그냥 ‘엄마’, ‘부모’라

는 표현을 쓰기를 바라는 의견들도 있었다.

“계모가 사전적 의미로 의붓어머니라는 뜻인데 뭔가 계모하면 사전적 의미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해진 느낌을 받는 건 사실이다 이게 다 전래동화 때문은 아닌가 싶다.”(트위터, 2016-03-13)

“평택아이 실종사건 언급할 때 마다 계모, 계모 하는데 그냥 엄마라고 하면 안되나? 요새 재혼가정도 많을 텐데, 자꾸 저렇게 언급하면 괜히 사람들 편견만 더 생기지 좋을까 뭐가 있어친엄마인지 새엄마인지 그걸 중요해?”(트위터, 2016-03-11)

한 발자국 더 나아가 아동학대를 계모에 의한 것이라는 왜곡된 선입견을 가지지 않고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하여 중립적인 시각으로 해결방안들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아동학대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동학대가 살인으로 이어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법이 엄격해야 합니다.”(트위터, 2016-03-12)

“원영군의 죽음은 우리 사회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또 한 번 경종을 울렸다.”(네이버뉴스; [36].

2.2.2 낳은 정보다 기른 정의 중요성 강조

비록 소수의 의견이었지만 일각에서는 친자식이 아니더라도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의 마음, 계모라 하더라도 일단 아이의 엄마임을 강조하며 친부모가 아니더라도 아이의 양육자, 보호자로서 양육을 하는 부모의 마음은 같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었다. 일부 ‘나쁜 계모’, ‘나쁜 계부’로 인해 아이를 사랑으로 기르고 있을 계모와 계부들 즉, 재혼가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생겨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었다. 또한 정말 온 맘으로 정성을 다해 아이를 기르는 계부모에 대해 비록 아이를 낳지는 않았지만 아이를 기른 정의 더 크다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었다.

“제일 걱정은 정말 온 맘으로 정성을 다해 아이를 기르고 있을 계부 계모들. 나는 낳은 정보다 기른 정이 더 크다고 믿는다”(트위터, 2016-03-12)

2.2.3 계모보다 친부의 방임에 대한 비판적 시각

대중의 짙은 자성의 목소리로 아버지의 방임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되묻고 있다. 계모에만 초점을 맞추고 심지어 ‘계모’의 결혼 전 직업까지 언급하며, 계모에게 더욱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는 보도와 기사의 현실에 갑갑해하며 아버지의 책임을 되묻고 있었다. 더 이상 계모에게만 책임을 부과하지 않는 비판적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계모는 계모니까 그렇다쳐도 죄질은 친부 저놈이 더 나쁜거 아니냐? 계모가 학대할 때 지는 뭘했대?”(트위터, 2016-03-12)

“왜 계모 이야기만 해. 친부가 더 죽일 놈인데.”(트위터, 2016-03-12)

“사악한 계모, 모르쇠 친부... 아동 학대 공식”[34]

트위터와 뉴스기사에 나타난 계모의 사회적 인식에 대한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대안적인 메시지를 담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 어떤 특정 이슈에 대한 대중의 반응이 실시간 반영된 소셜미디어의 텍스트에서는 절반에 가까운 대안적 메시지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대안적 메시지의 경우 뉴스기사보다 소셜미디어에서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우리는 사회적 인식 변화의 선봉장에선 소셜미디어의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V. 결론

우리사회에서는 아직까지 자신의 부모가 친부모가 아닌 의붓아버지나 의붓어머니라는 사실을 숨기는 것이 다반사다. 일반적으로 재혼과 계부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영향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계모에 대해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가지게 된 부정적인 이미지와 편견은 신문 기사와 같은 방송 매체 속의 편향된 자극적 보도로 인해 더욱 고착화되어 왔다. 특히 언론매체 속에 녹아들어 있는 부정적인 ‘계모’에 대한 편견적 인식에 기반한 보도는 대중들에게 자칫 여과 없이 받아들여질 우려가 있기에 기사로 작성되는 용어 사용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계모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R’을 이용하여 트위터를 Word cloud로 분석한 결과 “계모”와 연계된 단어는 “학대, 신데렐라, 백설공주, 구박”이었다. 이혼율의 증가로 재혼도 함께 증가하여 가족의 형태가 다양화되는 현 시점에 재혼가정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변화가 필요하다. 하지만, 재혼은 아직까지도 사회적 주홍글씨로, 자녀가 있는 재혼 가정에서 계모는 나쁜 엄마로 매도되고 있다[1][6]. 특히 객관적인 사실을 보도해야하는 신문기사에서조차 아동 학대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계모라는 사실을 더욱 부각하여, 재혼가정의 계모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와 편견을 더욱 낙인화 하고 있다. 언론보도에서는 ‘사악한 계모’, ‘현대판 계모 사건’ 등, 자극적인 제목을 사용하고 있고, 울산지방검찰청의 수사공판자료집에서도 ‘울산 계모 사건’이라는 제목을 사용함으로써 재혼가정의 아동학대 사건을 계모, 계부 사건으로 표기하는 것이 관행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보여진다[15]. 이는 본 연구의 텍스트 분석에서도 아동학대에 대한 대부분의 기사들이 ‘계모’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쓰였고, 의붓어머니나 새엄마, 양부모 등의 유사 용어로 헤드라인이 쓰인 기사가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도 우리 사회에서 ‘계모’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부정적이며 고정 관념화되어 있는지와 함께 ‘계모’는 계자녀에 대한 학대자로 이미지화되어 있음을 단적으로 알 수 있다. ‘계모’에 대한 대중의 사회적 인식을 살펴보기 위하여 트위터와 뉴스기사 텍스트의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 대중의 인식은 부정적인 고정적 이미지 강화, 부정적 이미지에 대한 대안적 메시지 제공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었으며 각각의 인식 유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계모’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의 강화이다. 계모를 부정적인 고정적 이미지로 인식하는 내용은 크게

‘동화와 같이 계자녀를 학대하는 부정적 계모 이미지’, ‘재혼가정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동화와 같이 현실세계에서도 계자녀를 학대하는 부정적 계모 이미지’가 대중들에게 통념화 된 것을 확인하였다. 동화 속에 좋은 계모의 모습은 없이는 사악한 존재로 비춰졌기에 이러한 계모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현실 속의 아동학대사건을 대면하게 될 때 대중들에게 고정관념으로 자리 잡고 있던 계모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투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계모에 대한 부정적으로 고정화된 인식은 ‘이혼과 재혼에 따른 부작용’으로 ‘아이들을 위해 재혼해서는 안 된다’라는 편협한 논리에서 더 나아가 자녀를 데리고 재혼한 재혼가정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특히, 뉴스 기사에서 초차 “콩쥐팍쥐와 장화홍련에 나오는 나쁜 계모를 연상시키는 현대판 계모 사건”이라며 계모형 동화라는 허구적 이야기와 현실세계의 아동학대 사건을 연관 지음으로써 ‘계모’가 나쁜 어머니라는 부정적으로 고정된 이미지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둘째, ‘계모’에 대한 기존의 편견에 치우친 대중적인 부정적 이미지에 대항하고자 하는 긍정적인 대안적 메시지의 등장이다. 대안적 메시지가 등장하고 있는 점은 우리 사회의 긍정적 변화를 예상하게 만드는 희망적인 발견이라고 판단된다. 계모에 대한 고정관념을 벗어나고자 하는 의견들이 자생적으로 조금씩 생성되기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사회로의 변화 조짐을 엿볼 수 있다. ‘계모에 대한 편견에서 벗어나 사회구조적 문제를 직시’하고자 하며, ‘계모보다 친부인 아버지의 방임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가진 의견들이 있었다. 재혼가정이 많은 요즘 가족결합관계를 특정 짓고 사람들의 편견을 부추기는 ‘계모’라는 단어 사용 대신 그냥 ‘엄마’, ‘부모’와 같은 편견 없는 중립적 용어를 사용하여 사회적 편견에서 벗어나자는 의견이 있었다. 무엇보다 일부 학대를 저지른 ‘계모’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닌 ‘계모’를 어머니로서 인식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낳은 정보다 기른 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계모를 선량한 어머니로 입장을 대변하겠다는 의지로 변화의 조짐과 함께 아이를 사랑으로 기르고 있을 계모와

계부들 즉, 재결합 가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생겨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담은 대안적 메시지가 형성되고 있었다.

이처럼 계모에 대한 기존의 부정적 시각을 비판하고 좀 더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받아들이기 위한 인식과 사회적 변화의 의견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변화의 전조라고 보인다. 이에 ‘계모’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의 전환과 이를 위한 사회복지실천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재혼가정 및 계모와 같이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괄하여 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해 나가는 인식과 편견의 개선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다양성을 인정하며 편견과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다양성 존중의 교육적 정책과 함께 공익적 인식 개선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무엇보다 기존의 법률혼, 초혼, 혈연중심의 가족 외에 다양한 가족형태에서 자라나는 아동들의 성장과 사회화 과정에서 확대된 가족개념에 따른 포용적인 태도와 인식개선이 필요하다[38]. 이를 위해 ‘계모’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지 않을 수 있도록 유아기 때부터 가족의 다양성에 대한 교육과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어린 아동들에게는 계모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주지 않기 위해서 유아기에 접하는 동화책에 대하여 비판적 시각으로의 접근이나 개작 등이 필요하고, 이러한 개작된 동화책으로 교사들은 교육할 수 있도록 인식개선 교육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나아가 실제 계모이지만 계자녀의 양육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어머니의 역할을 묵묵히 사랑으로 이어가는 재결합 가정들을 좀 더 발굴하여 계모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교육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재혼가정을 위한 가족의 재구성 시 자녀들의 결속과 역할 갈등에 대한 심리정서적 지원이 가능한 재혼가족 기능강화 프로그램과 같은 개별적 가족 상황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가족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는 가족 구성원 간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친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정서적인 안정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유아녀 재혼의 경우 자녀에 대한 양육, 훈육의 어려움, 부모역할 기대의 불일치

등 새로이 형성된 가족관계 자체만으로도 많은 갈등을 겪는다. 새롭게 재구성된 유자녀 재혼가정의 경우 단순히 부부간의 문제를 넘어 가족 구성원 개개인 모두에 대한 심리·정서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특히 자녀의 연령대를 고려하여 발달 단계별 특성을 고려한 이해와 적용의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재혼가정의 경우에도 새로운 가정을 형성함에 있어 자녀와 함께 재혼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재혼가정의 부정적인 반응이나 어려움을 나누는 것부터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혼가정의 경우 계부모와 자녀사이 뿐만 아니라 새롭게 형성되는 형제자매간에도 가족으로서 재결합을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가족이라는 응집력을 가지기 위해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는 노력과 사전에 갖는 편견, 그리고 오해의 소지 등을 방지해 갈등을 최소화하며 가족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재혼가정의 여러 유형에 맞추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상황 등에 대한 사전 교육서비스와 함께, 계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들의 기질 등을 파악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 검사와 함께 양육기술과 대화기술 등을 교육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재혼가정의 재구조화 및 양육 지원서비스가 개별적인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며 지원될 수 있도록 민감한 지원 서비스 제공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입양의 경우 낯선 가정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정서적인 안정을 취할 때 까지 기다려 준다[39]. 재혼 가정의 아동도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심리·정서적으로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였기에 아픔을 드러내고 치유할 수 있는 시간과 경험, 그리고 새로운 가정환경과 가족 구성원에 대한 적응을 위하여 믿고 기다려줄 수 있는 심리적인 지지 환경의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계모’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전환을 위해 언론매체의 사용어휘 변화를 위한 정부의 권고와 함께 더불어 친부에 대한 아동양육과 보호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먼저 계부모, 입양부모 등으로 부모의 유형을 구분하는 단어 사용을 자제하는 정부의 권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존 편부모가정의 경우 편부라는 말의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해 양부모가 없는 가정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을 가져올 수 있어 ‘한부모’가

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다. 이처럼 한부모 가정이라는 어휘는 긍정성과 함께 부모가 모두 있지 않은 가정 또한 정상적인 가정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사회적 시각을 내포하고 있다. 한부모 가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이러한 가정의 형태의 긍정성을 이끌어 낸 것처럼 ‘계모’라는 어휘의 긍정성에 기반하기 위해 무엇보다 먼저, 아동학대 사건을 다루는 신문 등 언론매체에서 ‘계모’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자극적인 헤드라인 등을 지양하기 위한 정부의 권고가 필요하겠다. 특히, 언론의 자극적 사건 중심의 보도로 인해 계모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은 일반적으로 발생한 다른 아동학대사건에 비해 더욱 부정적이고 선정적인 요소를 가질 수 있다. 그러므로 인터넷 신문 등과 같은 미디어가 어떤 사회적 인식으로 계모를 의미화 하는지 살펴봄으로써, 사회적 담론과 현실의 괴리가 발생한다면 담론의 변화를 위한 노력으로 사회가 올바른 현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정확한 문제 상황과악을 바탕으로 올바른 정책 수립의 도모가 필요하다. 이는 언론보도를 통해 계모와 계부 이외에도 아동학대의 용의자 혹은 피고인이 탈북자 및 외국인 노동자와 같은 사회적 소수자일 경우에 차별과 편견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주의가 요구된다 [15]. 나아가 친부에 대한 양육과 보호의 책임도 동일하게 되물을 필요가 있다. 재혼에 따라 새로운 가정을 구성하였을 때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은 새로운 가족 구성원 모두가 책임져야하는 문제로 인식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따라서 언론에서도 아동양육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동등하게 접근하려는 시각으로 언론에서 계모가 포함된 가정의 학대사건 발생 시 ‘부모’라는 표현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아동양육과 학대의 책임을 어머니의 ‘모성애’로 한정하고 있었으나, 아버지의 양육의 책임과 ‘부성애’에 대한 부분 또한 동등한 입장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특히 시기적으로 아동학대 사건이 이슈가 될 때, 선정적인 헤드라인으로 눈길을 끌기보다는 더 이상 가정 내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현 상황의 문제점 지적과, 앞으로 학대 예방 및 대책에 대한 방향성 제시를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성숙된 언론의 모습이 더욱 필요할 것이다. 특히 현대사회에서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재결합가정이 늘어나는 요즘 재혼가정에서 아동에 대한 진심어린 사랑으로 양육을 지원하는 긍정적인 부분에 대한 보도들을 통해 재결합 가족에 대한 선입견을 줄여나가고 다양한 가족 구성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형성해 사회적인 수용의 인식을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언론에서 앞장 설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계모’ 라고 특정 지어지는 재혼가정의 어머니를 포함하는 등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를 위한 대안적 메시지가 나타나고 있기에 이러한 긍정적인 새로운 인식을 확대해 나가고 공유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소셜미디어는 시대의 상을 반영한 의견들을 모아 사회적인 이슈에 이목을 집중시키며 나아가 사회행동으로 이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에 우리 사회복지 현장에서 선도적으로 소셜미디어에 나타난 ‘계모’상을 통해 우리의 사회적 인식의 문제에 대항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적인 접근 방안을 모색해나가야 한다. 특히 사회복지 주요 기관들마다 기관 홍보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트위터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같은 콘텐츠를 활용해 소셜미디어의 긍정적인 역할과 기능을 심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 현장의 공통된 의견을 긍정적 메시지로 담은 공익광고나 카드뉴스 등을 통해 좀 더 적극적인 사회적 인식변화와 개선에 대한 공통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회복지 현장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력도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트위터와 뉴스기사를 바탕으로 연구하여 실제 사회적인 고정관념과 편견으로 어려움을 겪은 ‘계모’ 당사자의 이야기를 담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실제로 사회적 인식에 대한 이야기와 사회적 편견을 경험한 사례를 연구해 본다면 좀 더 의미 있는 함의점을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워드 클라우드 분석 시 제한된 기간의 자료 표집으로 결론의 타당성 혹은 일반화의 한계가 존재 할 수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향후 후속연구에서는 ‘계모’에 대한 단어의 의미연결망 분석 시도를 제안한다.

참 고 문 헌

[1] 양진희, “유아기 자녀를 둔 재혼가정 어머니의 재

혼가족생활 경험에 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제32권, 제4호, pp.5-34, 2012.

- [2] K. M. Heide, “Matricide and stepmatricide victims and offenders: An empirical analysis of U.S. arrest data,” Behavioral Sciences & the Law, Vol.31, pp.203-214, 2013.
- [3] 노형남, “워드클라우드에 의한 현대 경영 전략,” 관광연구, 제29호, 제4호, pp.335-353, 2014.
- [4] 이영석, 정일선, “재혼가족의 실태와 가족기능 강화방안,” 경상북도여성정책개발원, 2004-1 연구 보고서, 2004.
- [5] 정주아, “‘계모 찾기’, 버림받은 세대와 냉혹한 모성의 세계,” 실천문학, pp.230-243, 2012.
- [6] 이종서, “‘전통적’ 계모관(繼母觀)의 형성과정과 그 의미,” 역사와 현실, 통권제51권, pp.135-163, 2004.
- [7] A. Miller, C. Cartwright, and K. Gibson, “Stepmothers’ Perceptions and Experiences of the Wicked Stepmother Stereotype,” Journal Of Family Issues, Vol.39, No.7, pp.1984-2006, 2018.
- [8] 권미경, 재혼가족 아동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정책 요구 조사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9] 송순, “청소년 성별과 재혼가족의 동거유형에 따른 청소년의 재혼가정 적응연구,” 한국생활과학회 학술대회, 통권 제2권, pp.132-133, 2004.
- [10] 김효순, “재혼가족의 적응에 관한 문헌고찰: Bronfenbrenner의 모형을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제17권, 제1호, pp.191-230, 2005.
- [11] 양정혜, “뉴스 미디어가 재현하는 범죄현실 : 아동대상 성폭력 범죄의 프레이밍,” 언론과학연구, 제10권, 제2호, pp.343-379, 2010.
- [12] 박향경, 정익중, “인터넷 토론방 댓글에 나타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대한 대중의 인식: 2008년에 발생한 복지지원금 횡령사건 이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제62권, 제1호, pp.391-415, 2010.
- [13]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6 전국 아동학대현황보고서, 2017.

- [14] J. Kunz and S. J. Bahr, "A profile of parental homicide against children," *Journal of Family Violence*, Vol.11, pp.347-362, 1996.
- [15] 중부일보, 아동학대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 2016년 3월 14일.
- [16] 김지혜, 정익중, 이희연, 김경희,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 대한 신문기사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제65호, 제2호, pp.131-154, 2013.
- [17] 김혜연, 강진숙, "국내 아동학대 뉴스에 대한 비판적 담론분석. '원영이 사건'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제60권, 제6호, pp.283-312, 2016.
- [18] 소셜메트릭스(<http://insight.some.co.kr>).
- [19] 김지혜, 정익중, 이희연, 김경희,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 대한 신문기사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제65권, 제2호, pp.131-154, 2013.
- [20] 오세종, 변정민, "소셜미디어의 빅데이터를 통한 시청자 반응과 성공요인 연구," *문화와융합*, 제37권, 제2호, pp.527-551, 2015.
- [21] 송민호, 이수범, "트위터를 활용한 저출산 커뮤니티케이션의 의미연결망 분석," *광고PR실학연구*, 제11권, 제1호, pp.131-157, 2018.
- [22] 지상태, 신용태, "텍스트 마이닝을 이용한 잠재적 해외 기술수요 탐색에 관한 연구," *한국경영정보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pp.165-167, 2015.
- [23] 이창훈, *RHive를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연구*, 가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 [24] 박창현, "누리과정 정책 수요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 워드 클라우드와 의미망 분석을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제37권, 제3호, pp.73-91, 2017.
- [25] S. Ramlo, "Using word clouds to visually present Q methodology data and findings," *Journal of Human Subjectivity*, Vol.9, No.2, pp.95-108, 2011.
- [26] W. Cui, Y. Wu, S. Liu, F. Wei, M. Zhou, and H. Qu, "Context-preserving, dynamic word cloud visualization," *IEEE Computer Graphics and Applications*, Vol.30, No.6, pp.42-53, 2010.
- [27] S. E. Hamm, "Using word clouds for reflection and discussion in an online class," *Teaching Theology & Religion*, Vol.14, No.2, pp.156-156, 2011.
- [28] 박길하, "디지털헬스케어 분야에서의 빅데이터 활용 동향," *한국콘텐츠학회지*, 제15권, 제1호, pp.35-37, 2017.
- [29] 추혜진, 하서호, "빅데이터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 관리와 예측을 위한 맞춤형 3D 캐릭터 개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8권, 제1호, pp.250-257, 2018.
- [30] 네이버 데이터 랩사이트(<http://datalab.naver.com/>)
- [31] R. Atenstaedt, "Word cloud analysis of the BJGP: 5 years on," *British Journal of General Practice*, Vol.67, No.658, pp.231-232, 2007.
- [32] F. Heimerl, S. Lohmann, S. Lange, and T. Ertl, "Word cloud explorer: Text analytics based on word clouds," *Proceedings of the Annual Hawaii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ystem Sciences*, Vol.47, No.3, pp.1833-1842, 2014.
- [33] 임춘희, "재혼가족연구의 시각과 연구 성과에 관한 문헌고찰," *대학가정학회지*, 제32권, 제2호, pp.93-108, 1994.
- [34] 코리아헤럴드, 사악한 계모, 모르쇠 친부-아동학대 공식. 평택 원영이 살해 후 암매장, 2016년 3월 12일.
- [35] 굿모닝충청, 가족의 참 의미, 2016년 3월 10일.
- [36] 뉴스1, 원영이 사건 현장검증, 분노한 주민들. 정부와 경찰은 뭐했나, 2016년 3월 14일.
- [37] 동아일보, 승승 뚫린 아동학대 방지 매뉴얼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2016년 3월 16일.
- [38] 홍승아, "가족의 변화와 가족정책의 확장," *젠더리뷰*, 통권 제42권, pp.4-11, 2016.
- [39] 한연희, "입양부모 관점에서 본 입양아동의 입양 관련 이슈에 관한 심리정서적 특성에 관한 사례 연구," *부모교육연구*, 제12권, 제2호, pp.69-85, 2015.

저 자 소 개

정 수 정(Su Jeong Jeong)

정회원



- 2018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 박사)
- 2018년 7월 ~ 현재 : 동명대학교 산학협력단 초빙교수

<관심분야> : 아동복지, 아동권리, 아동생활시간, 사회적 배제

김 소 은(So Eun Kim)

정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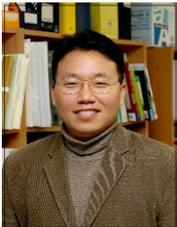


- 2017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박사과정 수료)
- 2014년 3월 ~ 현재 : 부스러기 사랑나눔회

<관심분야> : 아동복지, 아동빈곤, 사회적 배제, 아동 인권

정 의 중(Ick Joong Chung)

정회원



- 2000년 6월 : Ph.D. University of Washington(사회복지학 박사)
- 2008년 3월 ~ 현재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관심분야> : 아동청소년복지, 학대, 빈곤, 가정 외 보호 등